



2008년 2월 10일, 한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보1호인 송례문이 거의 전소되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픔과 회한을 남긴채 사라져가던 송례문은 5년여 간의 정교한 고증을 거쳐 화재가 발생하기 전보다 더욱 예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복원되어 지난달 5월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

취재 | 정책개발팀 박재정

‘다시 돌아온 국보1호 송례문, 안전설비를 돌아보다’

송례문의 역사

송례문의 이름은 높을 송(崇), 예절 례(禮), 문 문(門) 으로 정면 5칸, 측면 2칸의 중층 건축물이다. 1395년(태조 4)에 짓기 시작하여 1398년(태조 7)에 완성되었다.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고, 현존하는 서울의 목조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송례문 화재현장

2008년 설날의 마지막 연휴에 발생한 송례문 화재는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한 노인의 방화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미리 준비해간 사다리로 서쪽의 문루 담장에 넘어 들어가 2층 누각에 침입하여 시너 1.5L 3병에 불을 붙여 방화하였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송례문을 지나던 택시기사가 송례문 2층 누각 좌측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여 119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송례문 누각이 방수 역할을 하면서 화재진압을 위해 뿌린 물줄기가 발화지점에 미치지 못하는 등 목조건물 화재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보건물이라는 중요도로 인해 빠른 대처가 어려웠던 점 등이 송례문의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 이유였다.

송례문의 복원

2008년 송례문 방화사건 이후 2005년 낙산사 화재나 2006년 창경궁 문정전 화재사건등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소홀과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자는 취지에서 문화재를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복원을 해야한다는 쪽이었다. 복구방향은 일제에 의해 훼손되기 전의 송례문으로, 단순히 외양의 되살림만이 아닌 국민정신의 부활, 국민의 자긍심 회복을 기본으로 하였다.

2008년 5월부터 화재 수습단계, 복구 준비단계, 복구단계 순으로 송례문 복원은 시작되었다.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고증 연구를 통해서 피해정도 파악부터 송례문 손상 목부재의 재활용 방안 모색, 단청연구 등으로 이뤄지는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가 시행되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송례문 방재 시스템 연구를 통해서 송례문과 같은 특징을 가진 중층 목구조물의 화재 등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도입하였다.

송례문 방재설비

이번 송례문 복원은 진행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이슈가 되었지만, 단연 주목을 받은 부분은 역시나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화재 등에 소실되는 일을 방지하는 점이었다.

송례문 곳곳에 220m의 광센서형 열감지기를 설치했다. 이 열감지기는, 내부 온도가 65℃가 넘으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린다. 적외선 삼파장식 불꽃감지기 16개도 상층과 하층에 설치하였는데, 이 감지기는 라이터를 켤 때 튀는 불꽃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



[사진 1] 비상용 발전기(118kW)

지하에는 화재진압용 소화수를 저장하는 저수조와 소화펌프 등을 작동시킬 기계실, 정전에 대비한 발전기실(발전

기용량 118kW) 등이 있다. 이는 정전시 송례문의 모든 전기 시설물들을 커버할수 있는 용량이고, 저수조의 수량은 송례문과 그 주변에 설치된 모든 장비를 최대치로 가동해도 30분 이상 쓸 수 있는 분량이다.

세심한 부분에도 힘쓴 송례문

송례문은 방재시설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천재(天災)에도 대비했다. 쌍극자피뢰침을 설치해 낙뢰가 송례문 주변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별도로 피뢰설비를 시공해 낙뢰가 치면 송례문 아래 지하에 매설된 탄소접지봉을 통해 흘러 나가도록 했다.

조명시설도 늘어나 송례문 주변과 성곽 아래에 모두 90개에 달하는 6종의 경관조명을 설치해 송례문을 빈틈없이 비추도록 했다. 문후 하층과 성곽 상부, 홍예 내부에도 막대 형태의 LED 조명 75개를 설치했다. 조명을 켜는 시간은 하·동절기를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송례문을 지키는 힘

지상 1층, 지하 1층(연면적 279m²) 규모로 송례문 방재시설 제어관리와 관리사무실을 겸하게 되는 송례문 관리소 또한 새로 생겼다. 관리권은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이관되어 지난달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국가관리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송례문 관리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과 문화재청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 불시에 발생할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관리인력도 추가 배치하였다. 주간에는 방호인력과 안전관리 7명, 시설관리 3명의 인원이 추가되었다. 야간에는 경비원 10명이 5명씩 2개조로 나누어 격일제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상황실에도 5명의 인원이 순환근무를 하면서 CCTV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24시간 송례문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



[사진 2] 관리소 제어시스템 화면



[사진 3] 문루 불꽃감지기 및 CCTV

송례문의 체계화된 안전관리 시스템

위에서 보듯이 송례문이 외형 복원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었다.

송례문 화재당시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화재대응 매뉴얼은 문화재 각각의 특성과 주변 조건을 반영하여 개별 문화재별로 마련하였다. 현재 449건(국보·보물 150건, 사적 141건, 중민 155건)의 매뉴얼을 문화재 관리자에게 배포하여 유사시 행동요령을 몸에 익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재별로 각기 다른 매뉴얼중 송례문 안전관리 매뉴얼을 살펴보면 초기화재시 대응전략, 비상연락망(유관기관), 소방시설 상세현황 등의 정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매뉴얼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합동소방훈련도 상·하반기에 각 1번씩 예정되어 있고 이 외에도 훈련과 점검 횟수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문화재의 종합적 상태와 관리우선순위 결정 등 다양하게 활용할수 있는 GIS¹⁾ 기반 문화재 방재지도의 제작도 계획중이라고 한다.

송례문 관리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몇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등의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다. 핵심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과 ‘사고 발생시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 두가지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송례문 복원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고 하였다.

송례문의 안전은 걱정마세요!

취재를 위해 송례문을 방문한 날에도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나 외국인 관광객등이 방문하였고, 그 근처에는 안전관리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처럼 송례문 복원을 계기로 20명이 넘는 인원이 송례문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각기 다른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일을 하는 셈이다. 주간에도 야간에도 실재없이 몰려드는 관람객이나 혹시나 있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칠만도 한데, 송례문을 위해 일하는 관리자들은 저마다 자부심이 가득했다.

본인들의 일이 사사로운 개인의 일이 아닌, 공공을 위한 일이고, 보람도 크다는게 주된 이유였다. 그래서 체력적으로는 힘들지만 성취감도 있고 즐겁게 일한다고 했다.

5년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모두 실의에 빠졌고, 다시는 예전처럼의 송례문을 보기는 힘들것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를 뒤로하고 오늘의 송례문이 재탄생 한것처럼, 송례문을 수호하는 그들이 있는한, 우리는 송례문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

1)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일반 지도와 같은 지형정보와 함께 지하시설물 등 관련 정보를 인공위성으로 수집, 컴퓨터로 작성해 검색, 분석할 수 있도록 한 복합적인 지리정보시스템이다.